

# “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선제 대응 미흡”

## 제주 수산물 온·오프라인 특별 할인전 17~18일 성산포항여객터미널... 25일까지 온라인

### ■도의회 제411회 2차 정례회 예결위 2차 회의 “118억 편성했지만 실질적인 대응 예산은 없어”

내년 4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제주 수산업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제주도의 대응 예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정은 의원



현기중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7일 제 41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제주도의 내년도 대응 예산안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가 내년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으로 118억원을 편성했지만, 매년 지급하고 있는 수산물 수급안정기금 등을 대응 예산에 편성되는가 하면 국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대응 전략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자리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문·예래동)은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제주도의 경우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다른 지자체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수산업 종사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제주도의 내년도 대응 예산과 관련해 “수산물 수급 관리 기금은 매년 편성되는 것인데 해당 사업으로 인해 편성되는 게 맞느냐”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 대응 예산은 6억5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내년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비가 확보된 내역이 있느냐”고 물었고, 고종석 도 해양수산국장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으며, 지원비는 그동안 해 왔던 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편성돼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 제411회 도의회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현기중 의원(국민의힘, 성산읍)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안과 관련)수산물 마케팅 분야에 5억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해당 예산은 이미 2021년 12억 7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2020년에도 7억 5000만원이 지원됐던 것”이라며 “이 예산을 후쿠시마 대응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수산물의 안전성, 국민의 건강 등의 차원에서 보면 일차적으로 방사능 오염 유입 조사를 확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 “계측 장비 부분에

대한 예산이 우선 투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국장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방사능 측정 장비 두대를 확보한 상태”라면서 “국가하고 역할을 분담해 바닷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과 측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국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매뉴얼 구축, 용역 수립, 정부를 상대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 지역혁신벤처펀드 조성액 과다”

## 한권 “지원된 46곳 중 제주기업 10곳 그쳐” “투자 이후 회수금 사후관리 방안 매우 미흡”

제주도의 지역혁신벤처펀드 투자 이후 회수금의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금 60억원은 매우 과다하며 투자 이후 회수금의 사후관리 방안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

주·광주 지역 소재 성장 유망기업,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각 지역의 출자금액을 보면 벤처기업이 654개소가 있는 광주는 48억원으로 제주는 벤처기업 수가 212개사에 불과한데, 출자액은 60억원이다”면서 “벤처기업 수는 제주가 광주의 1/3 수준인데, 출자액은 제주가 광주보다 12억원이 나 더 출자하고 있어 과도하게 펀드 출자금을 정하고 있다”고 꼬집

었다.

특히 한 의원은 “지난 도정에서 조성한 4차산업혁명펀드의 조성금액은 1호 150억원, 2호 160억원 등 총 310억원”이라면서 “지역내 투자를 출자금액의 2배수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제주기업에 투자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펀드 조성액은 TP의 출연금으로 편성돼 지출되는데, 향후 펀드 운영(투자) 종료 후 회수금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면서 “4차산업혁명펀드를 비롯한 각종 벤처펀드가 조성된 이후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 도민 사회 및 의회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2022 제주빅데이터컨퍼런스에서 4차산업 시대 미래 먹거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디지털트윈 활용에 달려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지난 6일 '제주의 NEXT 삼다(三多)를 준비한다'를 주제로 메종글레드호텔에서 2022 제주빅데이터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김기병 AWS(아마존웹서비스) 매니저는 아마존의 디지털 혁신과 빅데이터·인공지능 혁신사례를 통해 제주가 인공지능을 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인 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다수 고객에게 높은 수준의 확장성을 가진 IT자원들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이다. 김성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은 “제주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인공지능융합용 데이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연계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신상용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은 빅데이터를 통한 관광콘텐츠 일라 이언스(제휴)와 서비스형 콘텐츠의 공동 활용을 통해 새로운 제주 관광의 영역 개척을 제안했고, 유은정 연세대학교 지식정보학연구소 교수는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제주의 미래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전환이 필수라는 견해를 밝혔다.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관계자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주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번 빅데이터컨퍼런스에서 방향을 제시해주었다”면서 “앞으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산업적 활용을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미래 먹거리, 빅데이터·인공지능에 달려”

### 제주도-제주TP, 6일 제주빅데이터컨퍼런스 개최 4차산업시대, 빅데이터·인공지능·디지털트윈 고찰

## 創立 28周年 記念 및 2022年度 支援金 授與式

본 재단 정관 및 2022년도 사업계획에 의하여 장학금, 체육진흥지원금, 문화사업 지원금, 사회복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시상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 및 정부 방침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장학금 및 지원금은 은행 계좌로 이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덕산문화재단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상 및 수여내용		
1	덕산문화상 제23회 덕산문화상 : 대정적십자봉사회	10,000,000원
2	장학금 강재현(제주대학교)외 9명	17,400,000원
3	체육진흥지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2학년 오예진(사격)	1,000,000원
4	문화사업지원 적십자사 제주지사 외 4개처	5,000,000원
5	사회복지지원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② 박신현 외 2명 (불우장애우) ③ 고건우 외 4명 (불우청소년)	1,000,000원 1,500,000원 1,500,000원
합 계		37,400,000원

www.dugsan.or.kr  
(연락처:010-3694-3310)

財團法人 德山文化財團 理事長 金明信

## 2022년 작가의 산행길 송년콘서트

# 12.10

토요일 오후 16시 30분~17시 30분  
구.서귀포관광극장

### 내 나이가 어때서 “오승근”

가수 주연후 / 가수 한서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람시 마스크 착용 필수, 음식을 반입금지(음료 포함)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지역주민협의회

공연문의 064)732-1963

# 토지 구합니다

· 제주시 ·

구좌읍

조천읍

### 조 건

- ① 전원주택용 부지
- ② 허가득한 사업부지
- ③ 계획관리지역

## 베네건축 베네하우스

문의: ☎ 064-723-1105